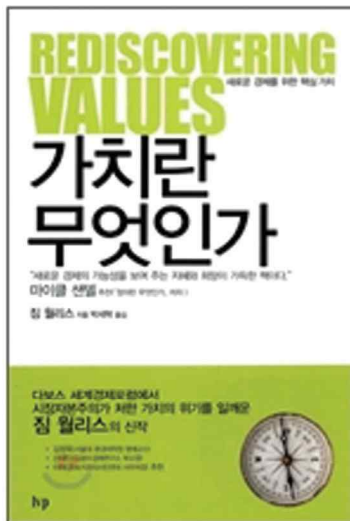


가치란 무엇인가

이윤재



짐 월리스 저, 박세혁 역, IVP, 2011

가치혼동 시대에 대안을 제시하다

미국에선 2008년 금융위기 시에 사회의 금융시스템을 복원시키기 위하여 대형은행을 부도낼 수 없다는 이유로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었다. 그 돈(서민들의 세금)으로 생명연장에 성공한 은행들은 돈을 절약하여 하루 빨리 빛 갚을 생각은 고사하고 고위 임원직원들에게 엄청난 상여금을 지원하여 오바마 대통령까지 화나게 만들었다. 이를 지켜본 미국 시민들이 분노하였다. 종류는 좀 다르지만 일반 서민들의 맘을 아프게 한 사건이 한국에도 일어났다. 최근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후 예금 부정인출 사건은 서민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은행의 고위직 및 VIP 고객들은 미리 정보를 빼내 예금을 찾았으나 일반 서민들은 고스란히 당하였다. 정부의 감독기관도 유착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해 미연에 이를 막지 못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되었다. 사회의 기강이 헤이해지고 사회적인 가치가 훼손되어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가치란 무엇인가』는 이런 가치혼동의 시대상을 예리하게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한 책이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며 통찰력도 뛰어난 저서이다. 저자인 짐 월리스는 『회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꾸는 7가지 방법』 『하나님 나라의 정치』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작가이자 신학자이다. 더 이상 가치가 혼돈된 세상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우리 자신이 스스로 회심하여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선지자적 소리를 높이고 있다. 본서는 일견 철학서적 같지만 경제서적-성경적인 경제서적(biblical economics)-에 가깝다. 오늘날의 물질중심의 자본주의와 같이 가치가 전도된 경제 시스템 하에 선 경제성장이 높아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치의 재발견

저자는 아주 사소한 질문에서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2009년 1월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곳에서 CNN 기자들이 유수한 세계적인 기업회장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한결같이 질문의 초점이 “이 위기가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였다. 그러나 짐 월리스는 이런 류의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였다. 문제의 본질은 경제 위기가 언제 끝날 것인가가 아니라 “이 위기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물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위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생활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그 가치를 매길 것인가? 어떻게 기업행위를 할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동안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근원적인 것, 즉 우리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한다(서론 pp.19~20).

본서의 원문에 충실한 제목은 ‘가치란 무엇인가’ 보다는 ‘가치의 재발견(Rediscovering Values)’으로 하는 것이 더 원문에 충실하다. 원제목에서 상징하듯이 우리가 그동안 잃고 지낸 가치들을 재발견하고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하고 적용하여 인간다운 경제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도 부합되는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적 회심

저자는 가치회복을 위해선 ‘경제적 회심(an economic conversion)’이란 독특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근원적인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예수를 믿지 않

는 비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의 인생관이 획기적으로 바뀌듯이 오늘날의 경제생활에도 획기적인 변화-경제적인 회심-가 일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적인 회심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 사회가 병들었는데, 그 원인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탐욕이다. 현재 자본주의는 물질은 많을수록 좋다고 믿는다. 다다익선이다. 더 큰 아파트, 더 크고 좋은 사양의 최신 자동차, 더 큰 요트 등 욕심은 끝이 없다. 이런 탐욕이 뭐 잘못 된 것이냐? “이런 욕심(탐욕)이 개인이나 국가경제 발전의 동인이 되는 선(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학교에서도 생산이나 소비는 많을수록 만족도(경제학에서 전문용어로 효용이라 함)가 높아진다고 가르친다. 어떻게 (어떤 가치관 하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가는 고려치 않고 있다. 성경은 탐욕을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한다(딤후 6:10). 둘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나’다. 나를 중심으로 한 교만과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경제학은 전통적으로 이기적인 개인단위의 원자적인 경제인(atomic agent)을 상정하고 있다. 이런 개인 중심 단위의 경제를 필자는 ‘Meconomy’라고 명명한다(목회와 신학 2011년 1월호 복리뷰 참조). 그러나 성경은 기본적으로 경제공동체를 강조한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인데, 이런 경제공동체를 필자는 ‘Weconomy’라고 명명한다. 특히 경제적 약자(나그네, 고아, 과부)를 보호하고 돌보라는 것이다. 셋째, 지금(right now)원한다는 조급증이다. 지금 소비하고 나중에 갚아도 된다는 빚 경제로 호도하고 있다. 각종 신용카드, 할부 구매 등을 통해 “지금 소비하라”고 집요하게 광고한다. 어느덧 우리 사회도 빚경제에 빠져

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도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약 800조 원에 달하여 금리 인상 시에 가계부문의 빚 부담이 우려된다. 빚은 처음에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일정 규모가 넘으면 빚의 종 신세로 전락한다. 또한 ‘지금’ 을 강조하면 천연자원의 고갈과 함께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로 피조물이 신음하게 된다. 이미 우리 주변에 공기, 수질 등이 오염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시장경제에 대한 회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이면에는 시장이라는 우상이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시장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지닌 영원한 것이 되었으며, 그에 저항하거나 심지어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조차 불가능 해졌다”고 설파하고 있다(P.49). 시장의 힘을 과도하게 신봉하는 많은 경제학자들(특히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그래도 신뢰할 만한 것은 시장이라고 주장한다. 2008년 세계적인 금융 위기는 시장경제에 대한 많은 회의심을 갖게 만들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약 30여년 (1980년대 레이저노믹스 이래, 필자 주)을 실시한 결과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부작용 (대표적: 빈부차)이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빈부차가 확대된 요인으로 시장경제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개입과 과도한 시장규제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잘못된 개입이 없었다면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도 없었을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특히 죄로 가득한 인간사회에서 작동되는 시장경제는 주기적으로 대불황이나 공황과 같은 경제위기가 있었다. 그때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위기를 넘기곤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효과적이나 아니냐를 놓고 경제학계에 논란이 있었다. 시장실패 시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정당하며 효과적이란 주장이 케인지언들의 주장인 반면에, 정부

의 개입은 궁극적으로 큰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양산하니 시장기능에 맡기라는 것이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다. 이런 정통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저자인 월리스는 대안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즉, 시장이나 정부의 기능만 갖고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공공부문)과 기업(사적부문) 시민사회(신앙공동체 등 비영리 단체들)간의 균형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적부문(즉, 시장)에서 나타난 개인적, 사회적 무책임은 이 위기를 불러온 주요 요인이다. 현재의 위기가 발생한 까닭은, 수십년에 걸쳐 사회적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대기업과 은행으로 하여금 공동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장기적 이익까지도 굽아먹은 ‘단기적 이기심’을 추구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듯이 좋은 가치가 약화되면, 문화적으로 사회 도덕성이 약화되고 우리 자녀의 미래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 위협을 받는 결과를 낸다”(P.220). 이런 주장이 의미하는 바는 대불황의 요인의 하나가 사회의 정부-기업-시민조직 간 불균형이라는 것이다.

경제의 사회성

이는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홍기빈 역, 도서출판길, 2009)의 사상과 일맥상통한다. 폴라니는 시장경제의 자기조정 (효율적인 시장) 기능의 불완전성을 강조하고, 그렇다고 정부의 역할도 신봉하는 것도 아니다. 경제적 활동이란 사회적 과정에서 상호 호혜성(reciprocity)과 재분배원리에 의하여 결정된다고(사회적인 경제공동체) 보았다. 폴라니의 사상은 경제의 사회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개입보다는 사회의 역할(개입)이 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점에서 월리스가 종교나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폴라니의 세계와 유사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나 시장에만 맡길 경우 경제행위의 당사자인 인간의 탐욕이나 자기본위의 경제 행위가 변하지 않는 한 경제의

근원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즉, 경제적인 회심이 필요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가 '카나리아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과거에 광부들이 지하 갱도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를 갖고 들어갔다. 유독가스가 차면 제일 먼저 카나리아가 울음으로 경보음을 내어 위험신호를 알린다. 우리 사회에서도 경제적인 약자들의 소리(고통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사회는 경제적으로 위험하다. 성경에도(레 19:9-10) 밭의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주라고 명령한다. 재분배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것이 온전하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PP.119-133).

성경적 경제생활의 제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4부에선 “그만 하면 충분하다,” “우리는 한 배를 탔다,”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꿀 것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자족하는 경제생활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한 점을 상기시킨다 (빌 4:11). 하나님의 경제법칙은 ‘충분하다, 우리가 나누기만 한다면’ 으로 요약된다 (P.150). 제5부에선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짐하는 경제적인 회심을 강조하고, 가정을 중시하는 전통 가치관의 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일(노동)의 의미와 봉사의 윤리를 역설하고 있다. 이런 가치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미국의 선조들이 세웠던 청교도 정신이 바로 그것이다. 짐 월리스는 이런 가치들을 재발견하고 오늘에 맞게 적용해야 오늘날의 경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가치들은 그 동

안 지나치게 의존한 시장이란 이상으로 말미암아 잊고 지냈는데, 이제는 이런 소중한 전통 가치들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이런 가치들은 우리의 조상들에게도 있었다. 물질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정신세계(비물질세계)를 더 중하게 여기던 시기도 있었다.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사상도 우리에게 되찾아야 할 귀중한 사상이 아닌가! 저자는 맨 마지막 장(17장)에서 구체적인 20가지의 실행계획(도덕운동)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단순한 삶은 축복이다, 이웃은 중요하다, 신용카드를 없애라(다소 과격한 구호지만), 카나리아 소리를 들으라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성경적 경제와 도덕적 회복, 그리고 사회봉사와 사회정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성인주일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저자의 주장에 공감한다. 이런 종류의 단편적인 프로그램들은 있으나,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미미한 편이며, 특히 성경적인 생활경제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최근 개인의 빚 문제로 파산하는 사람, 무분별한 과소비(신용카드 남용), 도박 및 노름, 부동산 및 주식투자로 인한 재산 손실, 근무시간에 주식거래 등 근로윤리 실종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선 성경적인 경제생활이 필수적이다. 이런 문제점을 이젠 더 이상 방치하기 곤란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물질적인 추구에 혈안이 된 현대인들에게 경제적인 회심의 기회를 주는 좋은 지침서이다.

*본 원고는 목회와 신학(2011년 6월호)에 게재된 내용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게재를 허락해준 목회와 신학 측에 감사를 드린다.



이윤재 송실대학교 국제통상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며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경제/경영분과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저서로는 『성경속의 경제학』, 『사회적기업 경제』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기독교와 경제학’, ‘기업가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증분석’ 등이 있다.